

끊임없이 거듭나는 한국사의 古典

「韓國史新論」新修版 펴낸 李基白교수



1967년에 그 초판이, 그리고 1976년에 개정판이 출간된 「한국사신론」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읽혀 온 한국사개설서의 고전으로 꼽힌다. 개정판 출간 이후 14년만에 나온 이번 新修版은 자신의 저술에 대한 李교수의 끈질긴 천착과 그 학문적 완벽성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기백교수

역사학의 '正道'를 걷고자 하는 그의 학문적 결백성이 신수판의 출간을 늦추었으리라 짐작된다.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다시 그 사실들을 시대적, 사회적 관련 사실들과 연결시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역사학의 정도에 입각한 정상적인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창 진행중인 실증주의 사관과 역사주의 사관의 논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이교수는 사관에 너무 집착하는 요즘의 학계 풍토에 대한 조심스런 진단을 한다.

“역사적 진실은 항상 확고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관에 기초한 비평만은 온전한 역사해석을 기대할 수 없지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서부터 추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현대사에 관한 사료의 방대함에 비해 그 이전의 사료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만 해도 吳子나 안보이는 글자가 많아, 현재까지 完本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별 사료의 불균형은 점점 기본적 사료에 기초한 연구작업을 등한시하면서 방법론적인 논의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승과정에서 사료정리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 사료가 어떤 의도와 사관에 의해 작성되었는가를 추론해서 선별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능력이자 책임이지요.”

이교수의 이번 신수판은 이전의 개정판보다 70페이지 정도 늘어난 것으로, 원래 예정된 분량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增修版’이라 불리려던 계획은 변경되고 대신 ‘新修版’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인간중심의 역사이해’ 강조돼

초판본 출간이후 근 30여년간 수정, 증보작업이 계속되어온 이 「한국사신론」의 前身은 '61년판인 「國史新論」이다. 일제 어용사학들의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자평하는 이 책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일정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중세·근대의 삼분법을 기준으로 하되 애매한 부분을 왕조로써 적절히 처리한” ‘납은 방법’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한다. 그후 성숙되기 시작한 국내 역사학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구분에 있어서의 종래에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 구체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교수 자신의 독창적인 시대구분에 따른 改正版을 내게 된다.

“독창성을 중요한 하나의 속성으로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대구분은 가능한 것이며, 결코 기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신수판에서 이교수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면

한 나라의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비단 1차적 자료가 되는 史料의 문제뿐 아니라 역사가의 史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개설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적 논문과는 달리 역사의 상한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통되는 전체적 흐름을 각각의 시대구분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李基白교수(67, 한림대)의 「韓國史新論」은 1967년 그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한국사 개설서의 古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교수는 '76년 이 저작의 개정판을 낸 후 14년만에 그간 축적된 새로운 자료들과 학계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新修版을 출간, 한 저작물에 대한 끈질긴 천착과 학문적 완벽성을 보여 줌으로써 후학들에게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이교수 스스로가 序章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사신론」은 마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으로 흠이 있으면 이를 곧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이 그동안 늘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原稿檢討에서부터 作品이 完成될 때까지의 業務代行 企劃·編輯·翻譯·圖案·出版·製作



110-053 서울·鍾路區 內資洞 19 私學會館 901號 TEL. 720·8621 735·2995 FAX. 735·2995

文化知識을 전달하는 媒介體로서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企劃

- 創作·自敘傳·回顧錄·教養圖書 原稿
- 文學·藝術·哲學·宗教 書籍 등 翻譯物(著作權法에 抵觸되지 않는 作品)
- 大統領·國會議員 선거 등 政治에 關한 幽默集, 時事에 關한 幽默集 등 다양한 스타일의 原稿 保有

編輯

大學教材, 學位論文集, 學術誌, 中·高等學校 學習參考書, 教科書, 學院教材, 幼兒用學習誌, 一般單行本(詩·小說·隨筆集 등), 全集, 雜誌, 社報, 會誌, 回顧錄, 팬플릿, 다이어리, 手帖 등 (띄어쓰기, 맞춤법, 人名·地名·一般外來語表記, 語文 등 文教部 規定에 따른 正確性을 重要視 校正 編輯)

翻譯

英語·日本語·獨逸語·中國語 등의 作品 翻譯, 文學·學術(人文·社會·自然科學, 특히 電氣機械工學·食品學·營養學·醫學·漢醫學)·스포츠(골프·테니스·볼링) 등 분야별 專門術語 完全 解說 및 충분한 意譯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完譯은 물론 原稿正書까지(原稿檢討 필요없이 레이어아웃하여 바로 組版에 들어가도 된다고 自信하는 翻譯原稿)

圖案

廣告文案作成 및 圖案·表紙 디자인·編輯 디자인·廣告 디자인

出版

作家들의 개인 作品集, 回顧錄 등 일반 出版社에서 作家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出版에 곤란을 겪는 분은 妙案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믿음직하고 正確하고 責任感 있게 일을 처리하는 實力 있는 人員으로 構成

여러분의 아낌 없는 聲援 속에 좋은 책, 좋은 作品을 만들어내려고 항상 努力하는 자세로 반드시 作品을 만드는 일 외에도 出版에 關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相談에도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한 專門術語 洗練된 表現力 意譯 原稿

低廉하고 洗練된 編輯體制 共同의 利益이 될 수 있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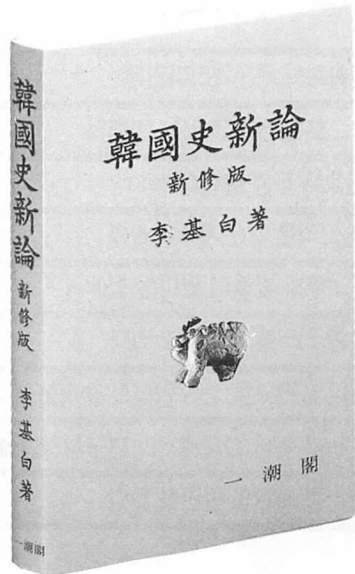
서, 현재 진행중인 논쟁까지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한 분량의 논문들을 참고로 했는데, 미처 그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논문도 많다고 한다. 이번 저서에 대해 그가 개인의 저서이지만 학계 전체의 공동작업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이 저서에서 '序章'은 본론과 같은 비중의 독립된 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역사 이해'이다. 특히 개설서의 경우에는 사건과 제도의 서술에 만족하는 '인간이 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추상화된 민족이나 공식화된 계급에 의한 역사서술은 한국사의 실제 움직임을 거리가 멀지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신분층, 그리고 같은 신분층내에서의 여러 혈족집단 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분석은 매우 바람직한 경향입니다."

이교수가 시도한 시대구분의 예를 살펴보면, 신라말·고려초를 '호족의 시대'로, 조선초를 '양반사회의 성립'으로, 삼국시대를 '고대국가의 성립'으로, 조선후기 17·8세기를 '농촌의 분화와 상업자본의 발달'로 칭하는 등, 각 시대의 특징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지배세력(주도세력)이다. 이 기준은 인간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교수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도권을 소유한 인간집단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한 각 시대들의



교체과정을 몰락세력보다는 신진세력 중심으로 서술하는 '진진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사시민강좌」로 역사학 대중화 노력도

「한국사신문」이외에 이교수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저서는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이다. 평소 고대사 관계 자료에 대한 '무관심'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간 꾸준히 자료정리를 해놓았던 金石文과 古文書 등을 구하기 힘든 사진자료들과 함께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현재 이교수는 '道谷書室'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동안의 논문들을 보충하며 자신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근 10년간을 앓아오고 있는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는, 가끔 집근처의 선릉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한다. 일련의 실험소설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아들 이인성씨가 가끔씩 이 산책길에 따라나선다.

'85년,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서강대에서 한림대로 옮긴 그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춘천의 연구실에 머문다고 한다. 한편으로 '87년에 창간된 半月간지 「한국사 시민강좌」의 책임편집을 맡으면서 「한국사신문」과는 또다른 형태의 개설서로서 일반인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잡지를 만드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현재 6집까지 나와있는 이 잡지는 다음호의 내용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따로 마련, 필자와 원고확보의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대 학창시절을 보낸 이교수에게 "그나라의 말과 역사가 아니고는 그 민족을 깨우칠 수 없다"는 그룬트비히의 말은 그로 하여금 역사를 공부하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교수 자신은 이제까지의 연구작업이 '정리'라고 하지만 그가 세워놓은 계획은 이와는 거리가 먼, 「삼국사기」·「삼국유사」와 金石文·古文書를 위시한 고대사 자료의 정확한 교정과 상세한 역주,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형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李基白교수 주요저서목록

■ 著書

國史新論('61, 泰成社) / 韓國史新論('67 초판, '76개정판, '90신수판, 一潮閣) / 高麗兵

制史研究('68, 一潮閣) / 民族과 歷史('71, 一潮閣) / 讀史隨錄('73, 探求堂) / 新羅政治社會史研究('74, 一潮閣) / 韓國古代史論('75, 探究堂) / 韓國史學의 方向('78, 一潮閣) / 韓國史講座 I — 古代篇(共著, '82, 一潮閣) / 新羅思想史研究('86, 一潮閣)

■ 編著

近代韓國史論選('73, 三星文化文庫) /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高麗篇(共篇, '84, 一志社) /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87, 一志社) / 檀君神話論集('88, 새문社)

■ 譯書

高麗史兵志譯註1('69, 高麗史研究會) / 韓國現代史論(그라즈단제브著, '73, 一潮閣) 外

■ 論文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74, 韓國史4) / 態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78, 百濟研究9) / 高句麗의 國家形成 問題('85,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 古朝鮮의 國家形成('88, 韓國史市民講座2) 外 70여편

— 정소연 기자

**쟁기출판기획
쟁기출판사**

136-01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35-19번지
전화: 763-6818
FAX: 763-6818



쟁기는 집없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쟁기꾼을 찾고 있습니다

출판, 광고기획·편집대행·표지장정·원고대행·사식·인쇄제작·각종카드·카다로그·일러스트레이션·컷
·동인지·사보